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망,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오 현 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수년 동안 악화돼온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취업전망과 같은 사회인지 요인이 대학생의 삶의 목표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자아관, 현실관, 미래관 및 삶의 만족도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삶의 목표와 만족도 검사 FLL' 및 지각된 취업전망에 관한 질문을 통한 조사를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3개 종합대의 239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FLL의 총 34개 문항의 영역별 삶의 목표들은 요인분석에 의해서 6개 상위 목표, 즉 자기애적 목표, 가족애/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도덕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로 분류되었다. 조사된 전체 집단은 군집분석 결과 취업전망이 서로 다르며, 취업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목표가 더 충족된 것으로, 또한 목표를 이루는 자신의 효능감이 더 높으며 아울러 영역별 삶의 목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총 3개의 집단 프로파일을 나타냈다. 취업전망에 따른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유리한 또는 불리한 취업전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해보았을 때는, 이들 두 집단 간에는 청년실업인지도 및 성별, 나이,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가족애/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영역에서 유리한 취업전망의 집단보다 목표들을 유의하게 더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반면 이들은 가족애/대인적 목표 영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집단에 비해 목표들이 유의하게 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부정적 현실관), 자기애와 도덕적 목표 영역을 제외한 4개의 영역에서 목표를 이룰 능력이 자신들에게 더 적게 있다고 평가했다(부정적 자기효능감). 이들은 또한 삶의 만족도에서는 가족애/대인적 목표, 그리고 도덕적 목표 영역을 제외하고 4개의 전 영역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덜 만족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래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결과와 함께 취업전망의 문제를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취업전망,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자아관, 현실관, 미래관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오현숙,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E-mail : hyunsookoh@hs.ac.kr

2008년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7.5%(머니투데이, 08-07-1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청년실업에 관한 2007년의 한 보고에서는 청년실업률 중에서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3.3%로 약 30만 6000명이 이십대 실업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내일신문, 2008-06-13).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취업준비자와 구직포기자를 배제한 숫자이어서 실제 청년실업률 또는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88만원 세대(88만원 월급 받는 20대)로 대변되는 20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대학생들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하며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발달상으로는 대학생은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속하면서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구성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생애적 과업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과 체험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치열하고 오랜 입시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직면하게 되는 미래의 취업문제로 인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의 구성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왜곡된 삶의 구성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즉, 최근에는 국민 전체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의 경우에는 근 20년 이래 계속 악화되어온 청년취업의 감소세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경향신문, 2007-08-17; 2007-10-22)이어서 이를 지각하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불투명한 취업전망에 의해서 대학초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해야하며, 취업을 생존

의 목표로 한 ‘생리적/신변적 목표’(Maslow, 1967, 1987)가 인생설계의 가장 절대적인 목표이자 구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대학생들의 실태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은 실제로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고한다. J 대학교의 재학생 실태 조사(김금운 등, 1999)에서는 조사 대상의 62.1%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Ch시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의 삶의 질을 조사한 연구(이정혜, 이혜숙, 1998)에서도 대학생들이 장래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이며 조사대상자의 66.8%가 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교의 290명 재학생을 상대로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장래진로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문제나 사는 방법 및 인생목표 등과 관련된 가치관의 문제는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력 측면에서 그 다음 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H대학교의 신입생 실태조사(김유현 등, 2007)에서도 60%의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통해서 가장 상담을 받고 싶은 영역을 학업 및 진로라고 하였으며,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느끼고 미리 준비해야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31.9%에 달하였다. 이 비율은 취업 위기를 느끼지 못하거나 위기를 느끼나 대책이 없다고 한 학생 등의 나머지 4집단보다 가장 많음으로써 진학과 취업에 가장 큰 관심과 동시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학의 기능이 대학생의 취업 문제를 야기한 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에 속한 학생들의 불안감 또는 스트레스

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음이 보고되기도 한다. Trow의 고등교육시스템 단계이행론(류혜숙, 2005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해당연령 중 대학생의 비율이 15% 이내이면 엘리트형, 15-50%이면 대중화, 50% 이상이면 보편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해당연령 중 대학생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서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이런 보편화단계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 고등교육의 주요기능이 엘리트형의 경우에는 엘리트·지배계급의 정신과 성격의 형성에 있고 대중화형의 경우에는 전문 분화된 엘리트 양성과 사회지도층의 육성에 있으며 보편화형의 경우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의 양성에 있다고 볼 때, 우리의 대학이 변화된 형태에 맞게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을 양성하는 주요기능으로 변화했다면 오늘날 대학이 사회와 유리되면서 생기는 여러 위기는 물론이고(류혜숙, 2005) 현재 대학졸업자의 취업의 문제는 이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의 대학은 기존의 엘리트형 대학기능에 안주해오면서 대학은 취업과는 별개의 곳이 되고 취업의 문제는 대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취업전망이라는 요인은 대학생의 삶의 구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목표와 기대로 이루어진 성취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목표 지향적 삶을 변화시키고 중국에는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가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 30년간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행복, 삶의 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연구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성, 나이, 학력, 수입, 사회경제적 계층, 취업여부, 종교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개인 외적 요인들과 자존감, 외향성, 내향성과 같은 개인내적인 성격 요인 또는 생활사건이 주는 스트레스 등을 중심으로 개인차를 설명하려는 연구들로 나뉜다(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1994; 차경호, 1995, 1999; Andrews & Withey, 1976; Diener 1984, 1994, 2000 등).

인구통계학적인 개인 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행복’을 주제로 한 ‘긍정 심리학’(Diener, 1984)의 초기 연구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Converse, & Ridgers, 1976)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 또는 행복감의 변량이 모두 합해서 총 변량의 약 15% 이하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려는 것의 한계를 보고한다 (Diener, 1984, 1994). 따라서 많은 다른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내적인 것에서 찾고자 하였고, 성격 또는 성격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Campbell(1976, 1981)은 여러 요인들의 상관연구를 통해서 성격의 특성 중 ‘자존감’이 다른 어떤 개인외적인 요인들보다도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그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Costa & McCrae, 1980; Diener & Diener, 1995; Emmons & Diener, 1985, 1986)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 외향성과 신경증, 충동성과 사교성 등의 성격특성들과

의 연관성에서 개인차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이 1995년에 한국 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의 주제가 된 이래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이 활발히 연구되었다(안신호, 박두진, 2000). 이 중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인구사회학적 변인보다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보다 강력한 변인임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13세부터 24세까지 1600명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조명한 외(1994)의 연구에서는 가족소득과 같은 변인은 삶의 만족도에 미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청소년 개개인이 갖는 세상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가 훨씬 더 크게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한 황정규(199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내적통제부위의 신념, 집단주의 가치관이 생활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 1474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박영신 외(1999)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지원과 함께 자기 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에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개관한 한성열(1995)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은 사회구조적으로는 자율성과 유능감이며 개인적으로는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신의 잠재력의 발현임을 강조했다. 35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의 5요인과 아울러 자아존중감 및 집단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차경호의 연구(2001)에서도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을 찾고자 했을 때, 집단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외향성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특정한 성격특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려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만족을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즉,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관찰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그 원인과 과정에 관계되는 변인들과 관련지어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서 삶의 만족이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또는 행복에 속하는 개념(Diener & Emmons, 1984, Diener, 2000)으로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행하는 자신의 생에 대한 인지적이며 평가적인 반응이다. 이는 극히 주관적이나 인지적인 판단으로서 개인의 정서는 여기에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와 함께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세 개의 개념 중 하나이다. 이것은 다른 두 개의 개념들과는 서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전자는 인지적 측면 후자는 정서적 측면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 된다(Diener, 1984, 2000; Diener, Scollon & Lucas, 2003, Diener et al, 1999). 아울러 인지적 측면은 삶의 가치관이나 목표를 반영하지만 정서적 측면은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를 ‘목표’라고 가정하였다. 목표는 일반적으로 ‘동기’, ‘욕구’ 또는 ‘가치’와 공통적인 개념이다(Kraak & Nord-Ruediger, 1987). Wilson(1967)의 욕구이론(telic-end-theory)에 의하면 욕구의 충족이 행복을 가져오며 그 반대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지속될 때는 불행감이 일어난다. 욕구를 다룬 이론들은 흔히 욕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핍(need) 이론과 목표(goal) 이론으로 나뉘며 가장 활발한 쟁점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행복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욕구충족에 도달한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Kraak & Nord-Ruediger, 1987). Scitovski(1976)에 의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로에 있을 때 목적이 달성된 때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한다.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는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현재의 행복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Freedman, 1978; Matlin & Gawron, 1979). 아울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목표달성을 향한 현재의 성취행동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McMahan, 1973)고 설명되기도 한다.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목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 기대, 자기 효능감 등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고 삶의 만족도가 이러한 변인들의 총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이 요인들을 함께 연관된 것으로서 연구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도 있다(Kraak & Nord-Ruediger, 198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삶의 만족도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목표, 특히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변인들과 관련지어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삶의 목표에 근접한 변인들에 관한 최근의 눈에 띄는 연구는 국내의 김정호(2007)의 연구이다. 131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동기상태 이론의 입장에서 Diener 등의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는 데에 삶의 만족 뿐 만이 아니라 삶의 기대도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삶의 기대는 특정한 경우(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 감소 및 웰빙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삶의 기대 뿐 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변인들, 즉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과도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곧, 삶의 목표, 목표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현실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기 효능감 판단, 미래의 목표 달성과 관계된 전망(기대; 미래관)이 모두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리고 이때 취업전망은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전 과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인지적 요인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곧, 오늘날의 대학생들은 동일한 시대적 조건에 살고 있지만 취업전망은 각자에게 상이하게 지각될 것이며 이 지각의 차이는 삶의 목표 구성의 차이로 나타날 것이다.

Kraak과 Nord-Ruediger(1987)는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개인이 설정한 목표 자체가 목표 간 관계와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삶의

만족도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행복은 어떤 특정한 기준과 현재상태의 비교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상태가 기준보다 나으면 행복감이 일어나고 못하면 불행감이 발생한다. 이 때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기준으로 작용하느냐이다. 예를 들어 이민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기준집단이론(Jerusalem, 1987; Rosenberg, 1979)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살펴볼 때,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이민국에 살고 있는 같은 처지의 민족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삼지 않고 이민국의 다수집단을 자신들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 이들의 자존감은 하락하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Emmons와 그의 동료들(1983)은 사회적 비교는 여러 영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주장한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기준집단이론’이 제시하듯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한 자신의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세운 목표일 수도 있으며 또는 부모의 요구일 수도 있다(Kraak과 Nord-Ruediger, 1987).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의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준은 목표 자체일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그들이 지각하는 취업 전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 때, 취업전망은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목표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삶의 목표의 달성 상태에 대한 판단 및 삶의 영역별 목표를 이를 자기효능감 그리고 삶의 기대(미래관)와는 어떤 관련성을 나타내며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결과는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발달에 유리한 삶의 목표 구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입시성적 수준이 서로 상이한 3개 종합대의 239명의 남녀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을 선택할 때 특별히 대학의 입시성적 수준을 고려한 것은 취업전망이 소위 ‘명문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 출신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는 학기 초 3개 대학의 여러 담당교수에게 의뢰하여 비교적 시간부담이 안 되는 강의 시간 내에서 강의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 전에 대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취지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생들이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도록 하였고 검사 참여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선택사항임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검사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FLL(Der Fragebogen zu Lebenszielen und zur Lebenszufriedenheit)

B. Kraak과 Nord-Ruediger(1987)의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 검사 FLL(Der Fragebogen zu Lebenszielen und zur Lebenszufriedenheit)을 한국 문화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 신뢰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삶의 목표와 삶의 만족도 검사 FLL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욕구 이론 중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삶의 만족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FLL에서 삶의 만족도의 정의는 Diener와 Emmons(1984)의 정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행하는 자신의 생에 대한 인지적이며 평가적인 반응으로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또는 행복에 속하는 개념이다.

FLL은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5개의 삶의 구성과 관련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초점이 다르으로써 5개의 삶의 차원이 나뉜다. 1) 삶의 목표: “(이 목표는) 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묻는다. 2) 목표의 주관적 충족상태; 현실관: “얼마만큼 내게/우리에게 충족되어있는가?”, 3) 목표달성에 대한 ‘효능감; 자아관: 목표를 이룰 힘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4) 목표의 미래 (기대); 미래관: 목표상황이 향후 더 나아질 것이라 보는가? 아니면 나빠지거나 현상태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는가?, 5) 삶의 만족도: 나는 얼마나 만족하는가?

설명된 바와 같이, FLL의 5개 삶의 구성 차원은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지만 문항의

수는 삶의 목표와 현실관(주관적 충족상태), 자아관(자기효능감)의 3 차원에서는 34개이며 삶의 만족도와 미래관의 2 차원에서는 10개를 제외한 24개로 축소된다. 제외된 10개의 문항은 현재 평가할 수 없는 경험 이전의 삶의 목표들(예: 출세 기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목표 차원에서 총 34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는데, 여기에서 2개의 문항, 즉 문항 13번(성적인 만족)과 문항 33번(전통고수)는 신뢰도를 상당부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문항 수는 32개이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삶의 목표의 중요성과 현실관은 5점 척도로, 자아관은 4점 척도, 삶의 만족도는 7점 척도, 그리고 미래관은 4점 척도 상에서 평가되었다.

FLL의 신뢰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삶의 목표 차원에서 총 34개의 전체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축소된 공통요인에 명칭을 붙인 다음 5개의 삶의 전 차원에서 Cronbach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표 1에는 자기애적 목표, 가족애 및 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도덕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와

표 1.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삶의 목표	현실관	자아관 (자기효능감)	미래관	삶의 만족도
자기애적 목표	.77	.76	.75	.77	.76
가족애 및 대인적 목표	.81	.77	.81	.81	.83
개인-경제적 목표	.84	.80	.87	.84	.85
사회공익적 목표	.84	.80	.80	.84	.79
도덕적 목표	.82	.66	.79	-	-
정치, 이념적 목표	.67	.68	.45	.50	.52

같이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분된 각 6개의 요인들의 내적합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정치, 이념적 목표의 전 하위 척도와 도덕적 목표의 1개 척도를 제외하고는 신뢰도 계수는 .75-.87 사이에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 목표의 미래관과 삶의 만족도는 삶의 목표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단 1개의 문항만이 속하게 됨으로써 신뢰도 측정은 할 수 없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치, 이념적 목표의 미래관과 삶의 만족도에도 단 2개의 문항만이 소속됨으로써 신뢰도 계수는 상당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삶의 목표에 해당되었던 문항들의 일부가 미래관과 삶의 만족도에서 생략됨으로써 문항수가 적어진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도덕적 목표와 정치, 이념적 목표의 해석에는 신중이 요구된다.

취업전망에 관한 질문

취업전망에 관한 질문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질문 1개와 자신의 취업의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 1개로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0에서 3점까지 4점의 서열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각의 문항은 청년실업인지도와 취업전망이라는 별개의 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

총 34개 문항의 영역별 삶의 목표를 상위 공통요인으로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긍정적/부정적 취업전망에 따라서 삶의 목표, 현실관, 자아관(자기효능감), 미래관, 삶의 만족도의 수준이 각각 서로 다른 여러 유

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삶의 5개 차원의 요인분석에 의해 구분된 각 6개 요인들을 모두 투입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전체집단을 유리한 취업전망과 불리한 취업전망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뒤 교차분석 및 t-검증을 실시했다.

결 과

대학생들이 각각의 목표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한 총 32개의 삶의 목표 문항을 공통요인으로 축소하여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을 탐색하였을 때 34개의 삶의 목표는 총 7개의 요인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개의 요인은 고유치는 1.01로서 요인 구분의 기준은 넘었으나 단 1개의 문항만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므로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표 2는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해서 구분된 6개의 요인을 나타낸다. 표가 제시하듯이 6개의 요인은 문항들의 공통적인 내용적 특성에 따라 자기애적 목표, 가족애 및 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도덕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

이 6개 요인은 총 변량의 62.40%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중 개인-경제적 목표라고 명명한 제 1요인의 변량이 28.11%로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 요인에는 높은 생활수준, 경제적 보장, 출세 기회, 직업적 성공, (실직위험으로부터) 취업보장, 좋은 노동조건을 묻는 문항이 속했다. 사회공익적 목표로 명명된 제 2요인은 사회의 공정성, 남녀평

표 2. FLL의 삶의 목표 척도의 요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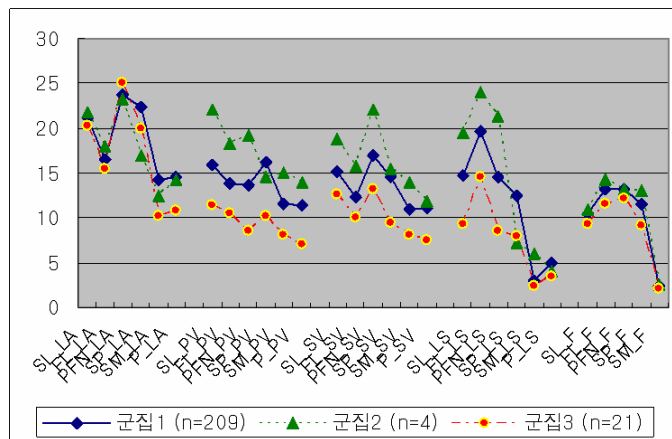
문항번호	요인부하량						요인의 특성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a4	.80	-.03	-.04	-.06	.11	.00	개인-경제적 목표
a2	.79	.14	-.03	.04	.21	.02	
a8	.79	.03	-.03	.22	-.01	.05	
a9	.67	.14	.09	.22	-.00	-.08	
a3	.63	.11	-.06	.33	.20	-.03	
a7	.57	.33	.17	-.09	.22	.09	
a29	.15	.79	.16	-.08	.07	.15	사회공익적 목표
a30	.06	.76	.12	.17	.12	-.00	
a32	.05	.61	.37	.24	.20	.15	
a28	.28	.57	-.02	.08	.07	.56	
a31	.14	.54	.22	.41	.10	-.00	
a34	.06	.53	.44	.15	.12	.22	
a19	.02	.23	.78	.07	.21	.22	도덕적 목표
a20	-.00	.21	.72	.17	.17	.21	
a18	.00	.29	.72	.24	.24	-.00	
a5	-.06	-.00	.62	.23	-.10	.27	
a25	.11	.21	.21	.68	.20	.00	가족에 및 대인적 목표
a14	.19	.11	.26	.63	.32	.11	
a16	.39	-.03	.17	.61	.15	.17	
a24	.17	.16	.11	.58	.25	.15	
a15	.38	.01	.30	.43	.35	.09	
a11	.10	-.00	-.05	.24	.80	.07	자기애적 목표
a10	.26	.22	-.07	.20	.59	.03	
a1	.11	.12	.24	.11	.58	-.00	
a21	.17	.26	-.07	.18	.55	-.07	
a17	.25	.22	.28	.21	.52	-.12	
a26	.13	.38	-.05	-.01	.11	.73	정치, 이념적 목표
a27	-.00	.07	.26	.27	-.05	.70	
a6	.08	.05	.39	-.26	-.09	.58	
a23	-.29	-.08	.18	.22	-.03	.56	
a12	-.00	.07	.25	.12	.39	.40	
고유치	9.00	3.68	2.05	1.83	1.22	1.18	
변량 (%)	28.11	11.49	6.40	5.72	3.82	3.69	합계: 62.40

등, 환경보호, 가족 내 민주화, 국가경제상황,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변량의 11.49 %를 설명했다. 제 3요인은 도덕적 목표로 명명되었는데 전체 변량의 6.40 %를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의식, 도덕적 가치, 양심, 타인봉사의 문항이 속했다. 가족에 및 대인적 목표로 명명된 제 4요인은 효도,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기, 가족 내 화목, 우정, 타인에게 좋은 인상주기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변량의 5.72 %를 설명했다. 제 5요인은 자기애적 목표로 명명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3.82 %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는 여가, 건강, 인생을 즐김, 사랑 받음, 자존감을 묻는 문항이 속했다. 그리고 정치, 이념적 목표로 명명된 제 6요인은 국가의 정치상황, 정치참여, 정치적 단체 및 공동체 소속, 민족의식, 종교적 이상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3.69%를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전망에 따라서 서

로 상이한 삶의 목표, 현실관, 자아관(자기효능감), 미래관, 삶의 만족도의 여러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삶의 5개 차원의 모든 요인들을 투입하여 모든 가능한 삶의 구성 방식의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된다.

결과로서 총 7개의 집단이 구분되었지만, 이 중 4개의 집단은 소속 인원이 1명이나 2명으로서 사실상 집단의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3개의 집단 중 군집2 또한 집단크기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단 4명으로써 전체의 1.8%에 불과한 집단인데 이 집단의 프로파일 양상은 다른 2집단과 크게 구분된다. 먼저 취업전망에서 살펴볼 때, 이 집단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취업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AM= 1.75; SD= .50)고 할 수 있다. 전체의 89.3 %에 해당되는 209명의 군집1은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의 취업전망을 나타냈지만 이 집단은 0점에서 3점 척도 상에서 평균 1.26(SD= .41)을 나타냄으로써



주. SL: 자기애적 목표, FL: 가족에/대인적 목표, PFN: 개인-경제적 목표, SP: 사회공익적 목표, SM: 도덕적 목표, P: 정치, 이념적 목표., LA: 삶의 목표, PV: 현실관 (주관적 충족상태), SV: 자아관 (자기효능감), LS: 삶의 만족도, F: 미래관.

그림 1. 취업전망에 따른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 집단 프로파일: 군집분석

취업전망이 오히려 부정적인 쪽이다. 총 21명이 속함으로써 전체의 9.0%에 해당되는 군집3은 취업전망의 평균이 .86으로(SD= .48) 취직이 안 돼 오랫동안 고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취업전망을 나타내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군집이 보여주는 프로파일의 특성을 살펴볼 때, 가장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낸 군집3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오직 개인-경제적 목표만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다른 삶의 목표 영역에서는 목표의 중요성을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삶의 목표 차원에서는 세 집단의 차이의 폭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미래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세 집단의 차이는 목표의 충족상태(현실관),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취업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목표는 현재 더 많이 충족되어 있으며, 목표를 이를 자신의 효능감 또한 더 높게 평가하며, 영역별 삶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총 3개의 프로파일은 특성상 취업전망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개의 상이한 양상의 삶의 구성 양식이라기보다는 취업전망이 긍정적일수록 또는 부정적일수록, 취업전망의 평균 수위에 따라 달라지는 같은 양상의 2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로서 취업전망이 보다 긍정적인 집단과 보다 부정적인 집단을 추론적 통계기법으로 비교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된 집단은 집단크기가 현저히 차이가 나서 집단 비교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비교를 위해서 전체 집단을 지각된 취업전망에 따라서 유리한(보다 긍정

적인) 또는 불리한(보다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t*-검증 및 교차분석(χ^2)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때, 유리한 취업전망 집단은 0-3점의 4점 척도에서 상위 점수 2와 3에 반응함으로써 비교적 긍정적 취업전망을 보인 사람들의 집단이며, 불리한 취업전망 집단은 척도의 하위 점수인 0과 1에 반응함으로써 매우 또는 비교적 부정적 취업전망을 나타낸 사람들의 집단이다. 먼저, 명목척도인 성별과 학년은 교차분석(χ^2)을 통해 비교하였을 때, 두 집단의 성별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hi^2(1, n=226)=3.36, ns$. 학년분포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chi^2(3, n=224)=1.35, ns$. 표 2는 계속해서 유리한 취업전망 집단과 불리한 취업전망 집단 간의 삶의 목표, 현실관(주관적 충족상태), 자아관(자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 미래관에서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전망 척도에서 상하로 양분된 두 집단의 취업전망의 평균은 실제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청년실업인지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위에서 살펴본 성별, 학년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나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불리한 취업전망 집단이 유리한 취업전망 집단에 비해 경제 수준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한 취업전망과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 차이는 미래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의 전 삶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차이의 양상은 앞서 취업전망에 따른 삶의 구성의 집단 프로파일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것은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자기애적 목표, 도덕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를 제외한, 가족애/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

표 3.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과 유리한 취업전망의 집단 사이의 삶의 목표, 현실관(주관적 충족상태), 자아관(자기효능감), 미래관 및 삶의 만족도에서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df	t	
	불리한 전망 n=179	유리한 전망 n=60			
취업전망	.98 (.15)	1.92 (.29)	69.35	-23.78***	
청년실업인지도	1.26 (.56)	1.18 (.44)	128.61	1.12	
나이	21.25 (2.25)	21.30 (1.99)	224	.89	
경제	2.94 (.70)	2.50 (1.52)	67.55	2.18*	
삶의 목표의 중요도	자기애적 목표	21.33 (2.95)	20.24 (2.30)	237	1.88
	가족애/대인적 목표	16.69 (2.41)	15.83 (2.73)	237	2.30*
	개인-경제적 목표	24.26 (3.88)	22.60 (3.81)	237	2.89**
	사회공익적 목표	22.44 (4.08)	21.18 (4.27)	237	2.03*
	도덕적 목표	13.99 (2.80)	13.60 (2.82)	237	.93
	정치. 이념적 목표	14.20 (3.54)	14.43 (3.60)	237	-.44
현실관 (주관적 충족상태)	자기애적 목표	15.26 (3.47)	16.85 (3.43)	237	-3.09**
	가족애/대인적 목표	13.44 (2.72)	14.10 (2.34)	237	-1.69
	개인-경제적 목표	12.66 (3.95)	15.72 (5.18)	83.16	-4.18***
	사회공익적 목표	15.37 (3.81)	16.98 (2.93)	130.83	-3.40***
	도덕적 목표	11.11 (2.45)	11.70 (2.21)	237	-1.66
	정치. 이념적 목표	10.77 (3.14)	12.12 (3.19)	237	-2.86**
자아관 (자기 효능감)	자기애적 목표	14.77 (2.62)	15.48 (2.80)	237	-1.77
	가족애/대인적 목표	12.04 (2.14)	12.74 (2.22)	237	-2.18*
	개인-경제적 목표	16.39 (3.84)	17.77 (2.89)	133.99	-2.92**
	사회공익적 목표	13.82 (3.24)	15.49 (3.13)	237	-3.50***
	도덕적 목표	10.63 (2.10)	11.26 (2.39)	237	-1.94*
	정치. 이념적 목표	10.66 (2.94)	12.08 (3.61)	237	-3.05**
삶의 만족도	자기애적 목표	14.01 (4.40)	15.67 (3.90)	237	-2.59**
	가족애/대인적 목표	19.18 (4.71)	19.93 (4.30)	237	-1.10
	개인-경제적 목표	13.60 (4.78)	16.17 (4.00)	237	-3.74***
	사회공익적 목표	11.70 (4.40)	13.22 (3.87)	237	-2.37*
	도덕적 목표	2.99 (1.06)	3.05 (1.24)	237	-.34
	정치. 이념적 목표	4.73 (1.75)	5.23 (1.69)	237	-1.96*
미래관 (기대)	자기애적 목표	10.40 (1.67)	10.28 (1.63)	237	.50
	가족애/대인적 목표	13.17 (2.00)	13.05 (2.00)	237	.41
	개인-경제적 목표	13.18 (2.10)	13.03 (2.04)	237	.50
	사회공익적 목표	11.38 (2.40)	11.38 (1.83)	237	-.01
	도덕적 목표	2.39 (.55)	2.33 (.54)	237	.70
	정치. 이념적 목표	4.26 (.99)	4.23 (.77)	237	.19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회공익적 목표에서 유리한 취업전망의 집단보다 목표들을 더 중요하게 인지하였다. 그러나 취업전망에 따른 집단 프로파일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가족애/대인적 목표와 도덕적 목표 영역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로 비교집단에 비해 현재 자신의 목표들이 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자기 효능감 차원에서는 자기애적 목표 영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개의 영역에서 목표를 이룰 자신의 효능감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삶의 만족도에서는 가족애/대인적 목표, 그리고 도덕적 목표 영역을 제외하고 4개의 전 영역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덜 만족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미래관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대한민국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진입)’의 기치와 함께 다수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2008년도의 경제상황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식과 실망감을 안겨줄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계경제 악화,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고유가 고물가와 함께 기업과 서민 모두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2008년도에도 상반기 취업자의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아시아투데이, 08-07-16)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년층(15-29세)의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7.8%로 전년 동월대비 0.6% 상승했으며 문제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동안 악화되어온 문제로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재를 살면서 이태백,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20대 청년들이 비로소 성인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구성해야하는 시점에서 과연 행복하게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의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취업전망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사회인지적 요인일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지각되느냐에 따라 우리 행동의 동기 이면서 가치를 대변하는 삶의 목표 구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행복,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기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세운 목표 자체와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각이 삶의 만족, 행복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Wilson, 1967, Scitovski 1976). 삶의 만족도는 그러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의 변량 총합은 아니라고 설명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은 상호 연관 속에서 관찰 될 수도 있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이 역설되기도 하였다(Kraak, & Nord-Ruediger,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부정적 취업전망이 삶의 어떤 목표 영역에 영향을 주며 이것은 또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변인들, 즉 현재의 목표의 충족상태(현재관), 목표를 이룰 자신의 효능감 지각(자기효능감), 목표에 대한 미래 전망(미래관),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생들의 삶의 목표를 큰 범주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삶의 만족도 검사 FLL의 삶

의 목표 차원에서 총 34개의 문항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대학생들의 목표는 크게 자기애적 목표, 가족에 및 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도덕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로 구분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분된 범주를 중심으로 군집분석을 통해서 상이한 취업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삶의 구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취업전망의 수준에 따라 삶의 구성 양상이 서로 다른 총 3개의 집단 프로파일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집단 중에서 전체의 1.8%에 해당되고 단 4명만이 속하는 집단이 유일하게 긍정적 취업전망을 나타냈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속한 나머지 두 집단은 경향적으로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내어서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취업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9%에 해당되는 21명의 집단은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내었다. 이 세 개의 집단프로파일을 비교하였을 때 가장 부정적인 취업전망 집단은 삶의 목표의 중요도 평가에서 오직 개인-경제적 목표만을 비교집단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곧, 기술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 취업전망은 개인-경제적 목표영역과 가장 크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집단프로파일 양상의 차이는 현실관, 즉 삶의 목표의 주관적 충족상태와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두드러졌다. 즉 취업전망이 긍정적일 수록 현재 삶의 영역별 목표는 더 충족된 것으로, 목표를 이룰 자신의 효능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집단은 소속인원수의 차이가 커서 추론적 통계를 위한 집단비교가 적절하지 않

은 관계로 취업전망에 따른 집단 차이를 추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집단을 유리한 그리고 불리한 취업전망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낸 집단을 유리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내는 집단을 불리한 취업전망집단이라 명명하였다.

t-검증에서, 유리한 취업전망과 불리한 취업전망의 두 집단은 미래관을 제외한 4개의 전 삶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삶의 목표의 중요도에서 가족애/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를 유리한 취업전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불리한 취업전망은 이 세 목표 영역에서 해당 대학생들이 비교집단의 대학생들보다 더 큰 욕구를 갖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목표의 주관적 충족상태, 즉 현실관에서는 비교집단과 유의한 차이로서, 가족애/대인적 목표와 도덕적 목표 영역을 제외한 전 4개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표는 덜 충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에서도 자기애적 목표 영역을 제외한 5개의 전 영역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신들의 효능감을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적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개인-경제적 목표 외에도 자기애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 정치, 이념적 목표 영역에서 또한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평가하는데 여러 기준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목표자체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목표가 달성되어가는 과정이 삶의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Kraak, & Nord-Ruediger, 1987; Scitovski, 1976; Wilson, 1967)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불리한 취업전망은 해당 대학생들에게 삶의 여러 영역, 특히 가족애/대인적 목표, 개인-경제적 목표, 사회공익적 목표에서 위기를 느끼게 함으로써 더 강한 욕구를 자극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 자신들의 목표가 더 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이들이 목표영역별로 강한 욕구를 느끼는 반면 어려운 현실을 지각하는데서 오는 욕구 수준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이 또한 이들이 보고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적다는 무력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불리한 취업전망의 대학생들은 특별히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욕구는 큰 반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되어 결핍(현실관)과 무력감(자기효능감)을 지각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또한 유리한 취업전망 집단에 비해 이들이 보고한 보다 적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많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군집분석에서 분류된 3개의 집단 프로파일 중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속한 2개의 프로파일은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에 따라 분류된 삶의 구성양상을 나타내었고, 마찬가지로 t-검증에서 또한 연구된 전체 대학생들의 74.9%가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나타내어 불리한 취업전망 집단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수의 대학생들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로소 성인의 삶을 위해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구성해야할 시점에서 불리한 취업전망과 왜곡된

삶의 구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사회와 대학이 새롭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로 보아진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대학이 해당연령의 50%이상을 포함하면서 이럴 경우 대학의 중요 기능이라고 보아지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국민의 양성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아직도 기존의 소수 엘리트 양성의 교육을 함(류혜숙, 2005)으로써 취업과는 별개의 장소가 되어버린 점에 있다고 볼 때 더더욱 그렇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 가지 흥미롭고 다행스럽게 보아지는 것은 유리한 취업전망과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 사이에 영역별 삶의 목표의 미래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목표 상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관은 곧 삶의 기대라 할 수 있다. 김정호의 연구(2007)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기대가 웰빙과 관련성이 없었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기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감소되고 웰빙은 증가되는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비록 부정적인 취업전망과 낮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취업전망 집단의 소속 대학생들이 목표의 미래상황에 대해서는 유리한 취업전망의 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들의 웰빙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 조건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위해서는 계속되는 후속연구의 뒷받침이 필요될 것이다.

또 하나의 주목되는 결과는 유리한 취업전망과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 간에는 청년실업인지도 및 성별, 나이, 학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한 또는 불리한 아니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취업전망은 개인의 지각의 영향을 받는 문제이지 어떤 특정 계층의 특정(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결과는 취업전망의 문제를 사회인지적 요인으로 다루어야 하는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라 보아진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나타난 결과 중 한 예외는 불리한 취업전망의 집단은 오히려 유리한 취업전망집단보다 자신들이 더 나은 경제적 위치에 있음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현재의 보다 나은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취업전망을 그들의 경제적 상실 위기로 결부시키고 여러 삶의 영역에서 더 높은 삶의 목표 또는 욕구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렇게 취업전망이라는 사회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게 된다면 부정적 인지과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더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취업전망은 어떤 특정 조건의 차이가 아니고 개인의 지각 방식의 차이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목표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목표 구성은 부정적 취업전망과 함께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시사점이 취업스트레스 속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조화롭고 긍정적인 삶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로서 자기정체성 확립과 성인으로서의 독립된 삶을 살기위한 생애의 발달적 과제를 잘 완수하게하며 미래 우리사회의 창의적이고 건

설적인 주역으로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목표의 문항들이 삶의 만족도와 미래관에서 축소됨으로써 이 두 개의 차원들에서 도덕적 목표와 정치, 이념적 목표의 문항이 수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비록 타당도가 높은 검사(Kraak, & Nord-Ruediger, 1987)를 사용하였지만, 여건상 단 1개만의 검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대상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들에 국한 되었다는 점이며, 넷째, 단순 t-검증을 반복함으로써 1종 오류가 커지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되므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문항을 포함하는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전국 단위의 더 많은 대상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영역별 목표 그 자체와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변인들의 총합은 아니라는 가정(Kraak, & Nord-Ruediger, 1987)에서 모든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다루었지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도 변인들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진다. 이 또한 후속 연구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2007-08-17).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30만 명 늘어. 청년취업은 감소세 지속.

- 경향신문 (2007-10-22). 청년층 고용사정 갈수록 나빠져.
- 김금운, 송진한, 이지현 (1999). 1999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쪽 91-134.
- 김유현, 오현숙 (2007).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 및 의식조사. 한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 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 내일신문 (2008-06-13).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
- 류혜숙 (2005). 대학혁신의 방향. 한국대학, 이대로 좋은가, 한신대 학술원 사회과학연구소 2005년 심포지엄.
- 머니투데이 (08-07-13). 경총,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 도입 제안.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 아시아투데이 (08-07-16). 6월 신규취업자 3년 4개월이래 최저치; 5월보다 3만 4천명 감소, 고용부진 심화.
- 이정혜, 이혜숙 (1998).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5(2).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pp.61-94.
- 차경호 (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1995년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삶의 질의 심리학, pp.115-143.
- 차경호 (1999).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 성향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0(2), 193-216.
- 황정규 (1997). 한국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심리적 건강, 신체 건강: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청소년문화(경기도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pp.291-344.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제9권, 7-26.
- 한성열 (1995). 삶의 질과 내재적 동기의 실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95-111.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osta, P. T., Jr., & McCrae,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5, 187-219.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Emmons, R. A., & Diener, E. (1986). Influence of impulsivity and sociability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11-1215.
- Freedman, J. L. (1978). *Happy Peopl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Jerusalem, M. (1987). Selbstkonzept, Aengstlichkeit und Sozialklima von jugendlichen Migranten: Arbeitsbericht des Instituts fuer Psychologie, Freie Universitaet Berlin, 1987.
- Kraak, B. & Nord-Ruediger, D. (1987). *Der Fragebogen zu Lebenszielen und zur Lebenszufriedenheit (FLL), Beschreibung, Theorie, Anwendung*. Frankfurt a.M: Deutsches Institut fuer Internationale Paedagogische Forschung.
- Matlin, M. W. & Gawron, V. J.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pollyanna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 411-412.
- McMahn, I. D. (1973). Relationships between causal attributions and expectancy of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108-114.
- Maslow, A. H. (1967). A theory of metamotivation: a biological rooting of the value-lif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7: 93-127.
- Maslow, A. H. (1987).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itovski, T. (1976). *The joyless economy: An inquiry into human satisfaction and consumer dissatisf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 논문투고일 : 2008. 07. 27
1차 심사일 : 2008. 08. 09
2차 심사일 : 2008. 10. 13
게재확정일 : 2008. 11. 12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ment Prospects, Life Aims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Hyunsook Oh

Han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youth unemployment issue has not shown any improvement in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how employment issue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influence their life aims, self-efficacy, view of reality, view of the future, and life satisfaction. 239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assessed through the instrument FLL and questions about employment issues, their life aims, life satisfaction and also their employment perspective. A total of 34 items of the FLL were divided through factor analysis into six higher life aims, self-love, family love and interpersonal aims, personal-financial aims, social-public aims, moral aims and political and ideological aims. Using Cluster analysis, three group profiles were found depending on the employment perspective such as a better view of reality, better self-efficacy, and better life satisfaction. A *t*-test was conducted in order to compare the two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favorable or unfavorable employment perspectiv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between the groups in the perception of youth unemployment or in social-demograph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academic year. However, in life aims, the unfavorab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erest in the domains of family love and interpersonal aims, personal -financial aims, and social-public aims than the favorable perspective group. Conversely, this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greater negative view of reality in most life domains, as it evaluated that its aims are more poorly achieved than the comparable group. Also, the unfavorable perspective group showed a lesser degree of self-efficacy in most life domains and the same in the category of life satisfaction, i.e., lesser satisfaction in all life domains except for family love, and moral aim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between the groups in the view of the future.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relation to other social-cognitive factors for life satisfaction found in preceding studies.

Key words : *employment prospects, life aims,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view of reality, view of the future*